

Latin American Culture

문화예술

회화적 상상의 대가 호르헤 벨라르데

훌리오 세사르 아바드 비달

호르헤 발라르데는 현재 활동 중인 가장 걸출한 에콰도르 화가이다. 그는 흠잡을 데 없이 뛰어난 기교와 폭넓은 예술적 궤적을 지닌 화가로 현 사회에서 예술인의 역할을 묻는 주제에 충실했고 애정을 표출함에 있어서도 과도한 외설에 빠지지 않으면서 심오하게 다뤘으며 에콰도르 청년 예술가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다.

발라르데는 1960년 과야킬(Guayaquil)에서 태어났다. 그는 과야킬의 후안 호세 플라사 예술학교에서 수학했다. 학창시절에는 예술 비평가인 후안 카스트로 이 벨라스케스(Juan Castro y Velázquez)의 가르침을 받으며 예술의 융성을 추구하는 청년

예술가들과 어울렸고 1982년 설립된 아트팩토리(Artefactoría)의 창단 멤버였다. 그는 이 영향력 있는 단체의 일원이자 지난 호(〈트랜스라틴〉 34호, 2016)에서 「마르코 알바라도, 징그러움을 추구하는 에콰도르 현대 미



호르헤 벨라르데 〈우리집의 히바로인〉
2002, 유화, 천, 130*85.3cm (출처:
www.centroculturalq.quito.gob.ec)



호르헤 벨라르데 〈산 호르헤의 아침〉 1990, 유화, 천, 125*150cm (출처: www.centroculturalq.quito.gob.ec)

술가」라는 제하의 글에서 다뤘던 마르코 알바라도(Marco Alvarado, 과야킬, 1962)의 동료이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1월 15일에는 이 단체의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과야킬의 현대인류학예술박물관(MAAC)에서 회고전이 열리기도 했다.

그는 영화를 공부하려고 1985년 마드리드로 떠났다가 1987년 에콰도르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공백기에 오랜 동료들이 전개한 예술 활동에서 이전투구와 사회정치적 표류를 목도하고 아트팩토리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에콰도르 현대 예술에 중대한 변화를 낳기 위해 전적이고 지속적인 개인 활동에 전념하였다.

벨라르데는 탁월한 기교와 더불어 독특한 방식의 혼종적 표현에 뛰어난 화가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에 그린 작품에는 그가 마드리

드에서 공부한 영화학의 영향이 극명하게 나타난다. 〈산 호르헤의 아침〉은 그 대표적인 예로서 표현주의 형식의 작품이 두드러지던 시기의 작



〈구르메〉, 유화, 프라이팬, 30cm (출처: www.centroculturalq.quito.gob.ec)

품이다. 이 시기의 작품에는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와 미국의 필름 누아르가 동시에 나타난다.

뒤이어 이 표현주의적 화법에 르네 마그리트의 초현실주의 작품과 유사한 화법이 더해지는데 전통적인 표현주의 작품은 물론이고 시각적 유희를 담은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의 다른 작품에서는 풍자적 성질의 해부학적 왜곡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런 작품에 그려진 인물상은 고전적인 방식으로 채색되어 있다. 이런 표현 방식과 더불어 발라르데는 초사실주의적 기법을 통해 겹쳐진 자연의 친근한 대상과 부차적 요소를 재창조한다.

또한 발라르데는 공작술이 뛰어난 예술가로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야만적 사유』에서 설명한 수공업자(bricoleur), 즉 원재료를 창작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공된 재료를 활용하여 혼종성과 파편성이라는 조건



〈샘〉 2008, 유화, 후지, 100*70cm (출처: www.centroculturalq.quito.gob.ec)

을 기반으로 예정된 설계 없이 수작업으로 공예품을 만드는 사람이라 할 만 하다. 발라르데는 사물을 탈맥락화하여 재활용하거나 조작하여 독특한

매력을 지닌 결과물을 얻는다. 어찌 보면 이 작업은 엄밀한 의미에서 조립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조립은 대부분 그림을 그리기 위한 기막힌 재료가 된다.

지난 30년간 발라르데는 다양한 재현의 코드를 활용했지만 그의 작업은 세 가지 주제, 즉 자신의 정서에 대한 묘사, 극화된 자화상 그리고 예술사 전유로 함축될 수 있다.

정서적 관계를 묘사한 작품을 통해 우리는 거창한 우리의 예술세계에 빈번하게 나타나는 파벌주의와 패권주의와 거리가 먼 화가를 만나게 된다.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친밀함을 대표하는 사람, 즉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을 보여주려 한다. 그 모델로는 그가 집요하게 재현한 본인 외에 그의 부인 아나벨라(Anabela)도 있다.

극화된 자화상과 수많은 전유는 발라르데를 극한의 고통을 받으며 깊은 불안을 느끼는 예술가로 보게 만든다. 그것은 예술가들이 창작을 위해 파르고 있는 깊고 거대한 문화적 전통에 대해 느끼는 고뇌일 것이다. 발라르데의 작품에서 꾸준히 나타나듯이, 어떤 영역이든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출발점으로서 기존의 창작을 전유하는 태도를 보이기 마련이며, 이 일은 경의와 신랄한 개작 사이에서 무수한 자질을 통해 기성 작품을 마주하는 것이다.

발라르데는 풍자적이며 때로는 공격적이다. 그의 전투 상대는 마르셀 뒤샹의 풍요로운 유산과 상당한 작가로 하여금 “회화의 죽음”을 믿게 한 뒤샹의 영향력일 것이다. 뒤샹에 대항한 가장 풍자적 작품은 〈샘〉이다. 이 작품은 다른 작품에서도 엿보이듯이 고상한 취미를 대놓고 공격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관객은 변기에 앉아 변을 보는 한 사내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입에 물고 있는 붓을 보면 그 사내가 변비에 걸린 화가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화가는 다름 아닌 벨라르데이다. 물론 캐리커처화 되긴 했지만 벨라르데임을 알아보기엔 충분하다. 이 작품은 뒤샹의 레디메이드, 즉 1917년 독립미술가협회의 뉴욕 전시회에 전시된 〈샘〉에 대적하는 작품이다. 이는 회화를 시대착오로 판결함으로써 자신의 무능을 감추는 상황에서 화가들이 느끼는 구속감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다.



〈사내와 압착기〉 2007, 유화, 천, 200*200cm (출처: www.centroculturalq.quito.gob.ec)

발라르데가 현대예술계에 비판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가 사회적 문제를 다룬 사진에는 빈번히 나타나지만 현대회화에서는 보기 드문 수공업자나 농부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는 심리적 통찰을 통해 2007년 독자적인 호의 캔버스에 그런 인물들을 지속적으로 그려내는데, 그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그의 휴머니즘을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내와 압착기〉, 〈숫장수〉(2007, 유화, 천, 200*324cm)가 있다.

발라르데는 극화된 자화상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그린 화가이다. 그가 회화에서 쓰는 자화상의 기법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신디 셔먼(Cindy



〈유디트와 홀로페르네스〉 2010, 유화, 천, 143*199.5cm (출처: www.centroculturalq.quito.gob.ec)

Sherman)이나 야스마사 모리무라(Yasumasa Morimura)의 기법과 유사하지만 전적으로 사진에 근간한 그들의 작품과는 차별적이다. 그의 자화상은 다양한 예술전통과 접점을 형성함과 동시에 독창성과 풍자가 혼재한 작품에 대한 숙고가 담겨있다. 그의 자화상은 산 호르헤와 관련된 경우가 아주 빈번한데, 그의 수호성인인 산 호르헤는 순교한 전설적 로마 군인으로 중세에는 용을 무찌르는 모습이 많이 그려졌다. 죽음을 무릅쓴 그 싸움을 자화상에 담음으로써 그의 작품은 단말마의 특성을 띠게 된다. 그는 변장과 가면을 통해 다양한 허구를 만드는데 뛰어나다. 예컨대, 그는 마치 그의 머리가 원주민인 슈아르족(Shuar)나 아추아르족(Achuar)(두 부족은 히바로인으로 알려져 있다)에 의해 찬차(Tsantsa: 축소된 머리)처럼 작아졌다는 듯이 그려낸다. 로봇으로 변하거나 참수된 세레자 요한이나 홀로페르네스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홀로페르네스의 경우를 보면 참수의 수단인 도끼에 머리가 그려져 있다. 극화된 자화상에 대한 이 글을 마치기에 앞서 흥

미로운 작품을 언급코자 한 다. 아주 유사한 두 작품, 〈복화술사〉(2013, 유화, 천, 60*50cm)와 〈인사하는 인형〉(2013, 유화, 천 60*50cm)이 그것이다. 이 두 작품에서 화가는 자신의 자화상을 얼굴 없는 복화술사가 조작하는 꼭두각시로 그려낸다. 이 작품은 자신의 작품이 야기할 다양한 해석에 대한 화가의 초조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개성을 질투하는 벨라르데를 그려내고 있다.

[이경민 옮김]

홀리오 세사르 아비드 비달 — 마드리드 자치대학교(UAM) 문학박사. 현재는 에콰도르 쿠엔카대학교 인문대학 연구교수

이경민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